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2010. 3.

《 目 次 》

요약

1. 머리말: 중국기업의 국제화 연구
2.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
3. 중국 대기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4.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5. 결론 및 제언

작성 | 李剛(Li Gang) 수석연구원
감수 | 權聖容 수석연구원

< 요약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가 수출 증대 및 외환보유고 확대, 환율정책과 심사비준 프로세스의 완화, 대외 투자전략의 시장지향성에서 기인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중국 경제 자유화(Economy Liberalization)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독점 국유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석유, 항공, 전력산업과 민영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IT, 가전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과 아프리카, 호주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정부정책이 대규모 국유기업에 집중되면서 과감한 해외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민영기업은 신중하고 효과 지향적인 해외투자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국유기업의 국제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투자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수시장 중심의 기술과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는 효과성이나 수익률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이한 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 가치하락 상쇄와 외국 우량기업의 경영위기에 편승한 해외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중국 경제가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외국계 자동차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 확보를 위한 천연자원 기업 인수에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정책적 목적보다는 경제효과를 지향하는 독자경영 추세가 두드러진다. 일부 정부정책의 개입은 존재하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영향력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 인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기업전략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로부터 높은 수익과 기술, 자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내실강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1. 머리말: 중국기업의 국제화 연구

□ 대표적 국제화이론으로는 <경쟁우위론>이 있으며, '독점적 우위론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거래비용이론(theory of transaction cost)', 'OLI이론' 등의 내용을 포함

- 하이머(Hymer)의 '독점적 우위론'은 다국적 투자의 동인으로 시장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과 기업 특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s)를 제시¹⁾
 - 기업 특유의 우위는 특허, 상표, 마케팅력 등을 비롯한 핵심자산 우위, R&D, 구입·판매, 低원가 등 규모의 경제 우위, 선진적인 조직 관리에 기반한 조직관리 우위 등을 포함
- 버클리(P.J.Buckley)와 카슨(M.C.Casson)은 '거래비용이론'을 기업 국제화 연구에 도입²⁾해 외부 중간재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기업은 내부시장을 창조하여 외부시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
 - 국경을 초월하여 내부시장을 창조하는 행위를 기업의 국제화로 표현
- 더닝(J.H.Dunning)이 제시한 'OLI이론' 또는 '절충이론(An Eclectic Approach)'은 소유의 우위(Ownership), 입지의 우위(Location),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가 기업의 국제화를 결정한다고 설명

□ <경쟁우위론>은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및 국제화 행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개도국 기업을 설명하기에는 미흡

- 기업은 경쟁우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화를 단행하기 때문에 경쟁우위에 따른 이익이 외국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을 상회해야만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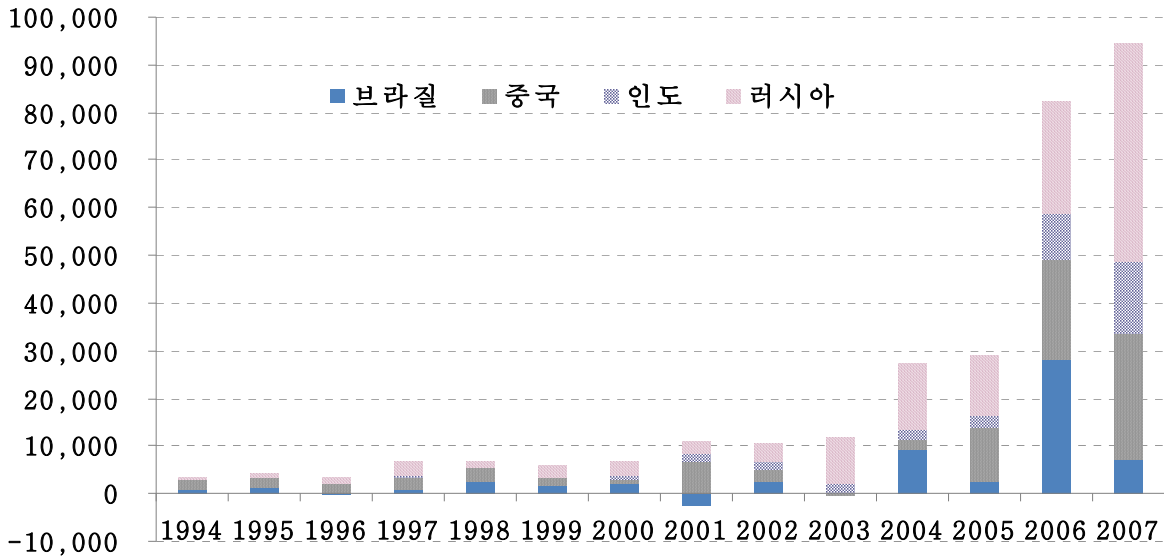
1) Hymer, S. (196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MIT Press: Cambridge, MA.

2) Buckley, P.J. and Casson, M.C.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Homes & Meier: London.

- 기술, 관리력이 부족한 신흥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비롯한 신흥국의 해외투자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전개

브릭스의 '아웃바운드 해외투자(OFDI)'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Extracts.

- 최대 신흥국인 중국의 OFDI(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통 이론에 입각한 시장논리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인위적 성향이 강함
- 차일드(Child)와 S.B.로드리게즈(Rodrigues)는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자체 경쟁우위 확보보다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³⁾하기 위한 결과로 규정
 - 국내시장의 지나친 규제와 제한으로 국내시장 확대가 불가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능이 부족
 - 휴대폰, 백색가전 등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국제화를 견인
 - 중앙·지방정부의 부실한 행정 및 법률체제로 국내 거래비용이 상승

3) Child J. and Rodrigues S. B. (2005)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Firms: A Case for Theoretical Extens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 381-410.

-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정책이 절대적으로 통제했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으로 설명이 불가
 - 위안화 자유태환 불가, 외화 사용 통제, 환율 통제 등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심사·비준이 까다롭게 적용
 - 중국경제체제가 개혁되면서 행정수단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기업의 국제화 목적, 수단,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기업의 국제화 트렌드를 전망
- 중국 대기업을 해외투자에 대한 모멘텀 및 산업별, 지역별 투자의 특성을 분석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수익과 평가, 금융위기 속에서의 신규 트렌드를 조사

2.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기초

-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및 경제체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확대
- 국유기업의 경영독립 및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민간기업의 자주적 경영 혁신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 해외 개방정책은 물류, 인력, 투자,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며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 수요를 증진
 - 외자 도입은 기술, 자금, 관리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 투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줌

□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기업의 해외 투자는 도입기(1979~1991년), 확장기(1992~2000년), 안정기(2001년 이후)의 단계를 거침

- 도입기에는 대외 무역회사 및 省市의 국제기술경제합작회사를 주체로 한 OFDI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투자 규모가 제한적
 - 대외 무역이 GDP의 10% 미만, 외환보유고 부족, 환율 통제 등 전형적인 내수지향적 경제의 특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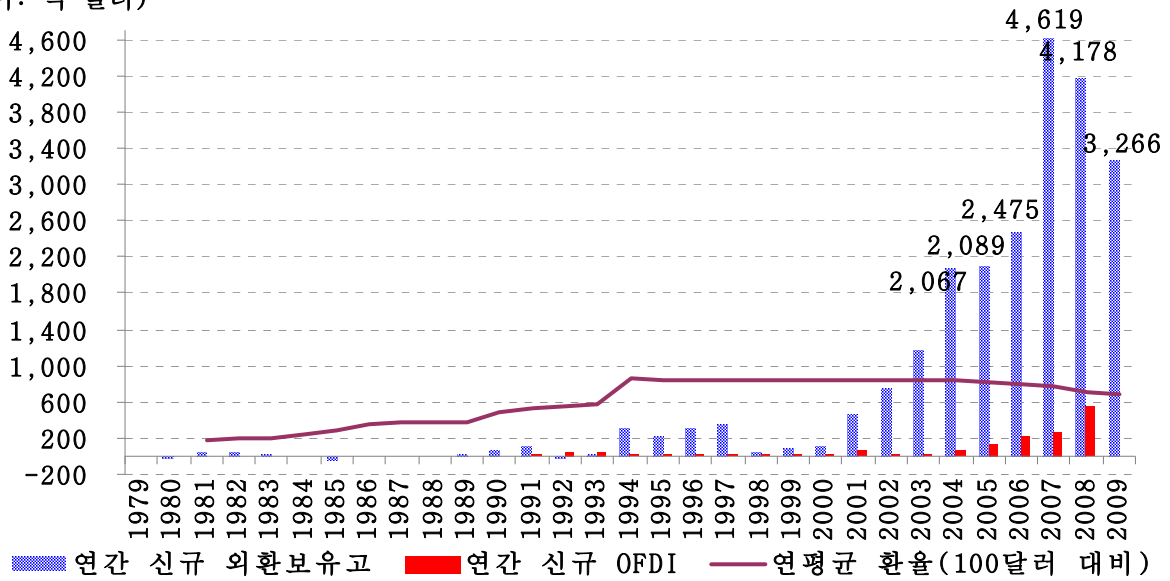
- 정부정책의 전환기였던 '남순강화(南巡講話⁴⁾)' 이후 확장기를 맞이한 해외 투자는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와 함께 외자 도입 확대를 견인
 - 수출 급증, 외자 유입으로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이 완화
 -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아 수출, 외환보유고 및 O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안정기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 무역과 외자 도입, 외환보유고 증가와 함께 중국기업의 OFDI도 안정세를 유지
 - 2005년부터 시작된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OFDI를 일정 수준 증진시키는 결과를 견인

4)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하고 '당의 기본노선(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없이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를 '남순강화'라 함

중국의 외환보유고, 금리와 OFDI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2009년 신규 외환보유고 및 금리는 1~10월간 수치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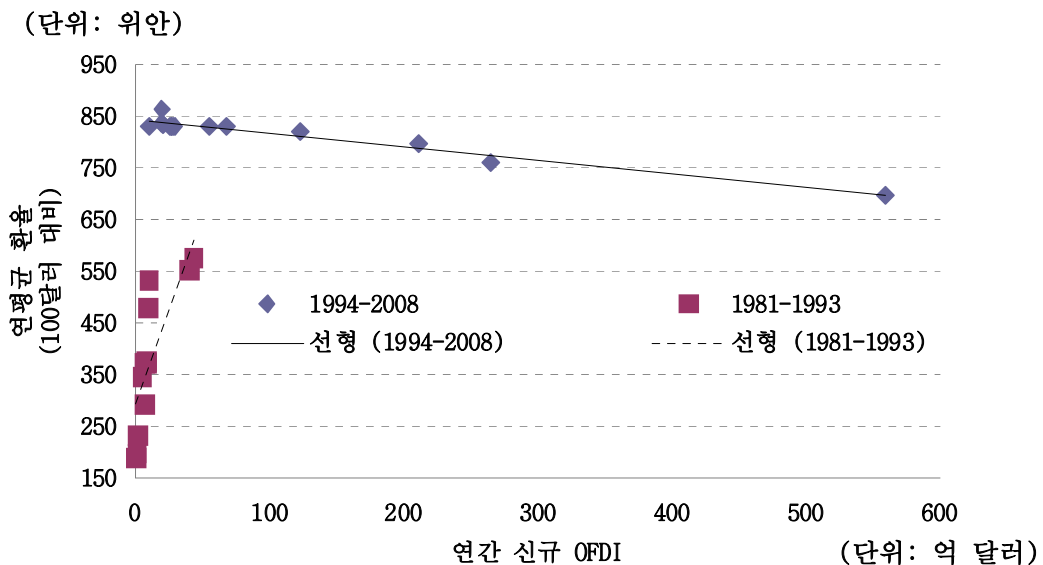
□ 도입기의 해외 투자는 엄격한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 행위보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합당

- 1993년 바오스틸(Baosteel)의 對독일 투자는 국내에 부족한 대형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 바오스틸은 국무원 '八五(1991~1995년)', '九五(1996~2000년)' 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
 - 바오스틸독일을 기반으로 설립된 바오스틸유럽은 현재까지 19.8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연간 6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

- 시장논리보다는 정부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환율, 산업동향, 경쟁자 동향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투자가 진행

-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기업의 자주적 의사결정 공간이 확대
 - 1994년 위안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는 중국의 경제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며,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은 수출과 외자 증대로 이어짐
 -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으로 평가절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해외자산 인수 및 투자원가가 저렴해져 해외투자가 폭증
 - 이는 1980년대 엔화 평가절상에 힘입어 일본기업이 대대적인 해외투자를 단행하고, 일본정부가 엔화 대출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한 상황과 유사
 - 중국 OFDI와 거시경제요소(외환보유고, 금리, 환율 등)의 연관성이 점진적으로 제고

금리 변동과 신규 OFDI의 상호 변동성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정부정책과 대외 투자환경의 변화를 경험

- 민간경제와 대외투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수출과 외환보유고의 성장과 함께 시장경제 원칙이 일부 반영
- 최근 10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정책보다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시장환경 요소가 크게 영향

3. 중국 대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대상 기업 선정

□ 2008년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을 표본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집계하고, 중국 대기업의 해외투자 특징을 분석

-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은 내륙, 홍콩 및 기타 해외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의 대표성을 반영
 - 2008년 말 기준 대상 기업들의 연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7.9조 위안과 9.3억 위안, 시가총액은 30조 위안을 상회
 -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을 표본으로 중국기업의 국제화 연구에 가장 큰 난제였던 데이터 신뢰성을 보완
-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 리스트에 의존할 경우 통계수치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
 - 차이나넛콤(中國網通)이 차이나유니콤에 합병되고, 중국은행(홍콩)은 사실상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이므로 차이나넛콤과 중국은행(홍콩)을 임의로 제외
 - 중신타이푸(中信泰富, CITIC Pacific), 화룬창업(華潤創業, China Resources Enterprise) 등 홍콩에 등록된 레드칩(Red chip⁵⁾), 폭스콘(Foxconn, 富士康), AOC(冠捷) 등 대만기업들도 중국 100대 기업에

5)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 주주로 홍콩에 상장된 우량기업들의 주식

- 포함됐으나 해외기업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배제
- 멥뉴유업(蒙牛乳業) 등 중국 내륙에서 사업을 하지만, 해외에 등록되어 의자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기업도 통계범위에서 제외
- 최종적으로 중국 100대 기업 중 중국 기관이 경영, 중국 내륙에 등록,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등 4개 표준에 부합되는 88개사를 최종 선별
 - 금융, 석유, 화학공업, 전력, 광산, 통신, 철강, 자동차, 항공, 항공, 철도, 건축, 부동산, 가전, IT, 소매유통, 식품 등 17개 대표 업종이 포함
 - 2008년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 시가는 각각 844억 위안, 99억 위안, 3,383억 위안
 - 최고 매출액 기업은 시노펙(Sinopec, 1조 2,048억 위안), 최저 기업은 화톈국제(華電國際, 205억 위안), 최고 순이익 기업은 CNPC(中石油, 1,346억 위안), 최저 기업은 상하이우마오(上海物貿, 7천 만 위안), 최고 시가 기업은 CNPC(5조 2,877억 위안), 최저 기업은 디지털차이나(Digital China, 神州數碼, 22억 위안)
 - 88개의 대상 기업 중 28개 사는 해외 장기투자 실적이 없는 기업
 - OFDI를 추진 중인 60개사와 未추진 중인 28개사의 경영을 비교하여 동일 산업과 환경 속에서 다른 유형을 견지하는 원인을 분석
- 2008년 말 기준 대상 기업의 OFDI(누적) 규모는 2,434억 위안으로 중국 기업 전체의 19.3%를 차지
- 해외투자 범위를 해외 자회사 또는 공동/합작경영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지분 투자로 정의하였으며, 실제 단기투자를 포함시킬 경우 OFDI는 250억 위안 정도 상승
 - 중국핑안보험(中國平安保險)의 對포르티스(Fortis) 투자, CMBC(民生銀行)의 對와코비아(Wachovia) 투자는 연보에서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에 포함시켰으므로 통계에서 배제

- 60개 기업 중 최대 해외자산 기업과 최소 기업은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 (686억 위안)와 베이징소우강주식유한공사(北京首鋼股份有限公司, 52만 위안)

2008년 말 해외 투자액(누적) 10위권 기업

(단위: 위안)

	업체명	해외자산 (元)
1	중국은행주식유한공사 (中國銀行股份有限公司, Bank Of China)	68,585,056,800
2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中國工商銀行股份有限公司, ICBC)	48,324,487,942
3	초상은행주식유한공사 (招商銀行股份有限公司, CMBChina)	31,910,000,000
4	중국국제항공주식유한공사 (中國國際航空股份有限公司, Airchina, 이하 '중국국제항공')	16,273,489,000
5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 (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CNPC)	15,341,153,800
6	화닝국제전력주식유한공사 (華能國際電力股份有限公司, Huaneng Power International)	12,442,830,870
7	레노버그룹유한공사(聯想集團有限公司, Lenovo)	8,356,859,215
8	중하이컨테이너운송주식유한공사 (中海集裝箱運輸股份有限公司, CSCL, 이하 '중하이컨테이너')	5,933,626,607
9	중국석유화학주식유한공사 (中國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inopec)	4,896,514,812
10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공사 (中國建設銀行股份有限公司, CCB)	4,766,22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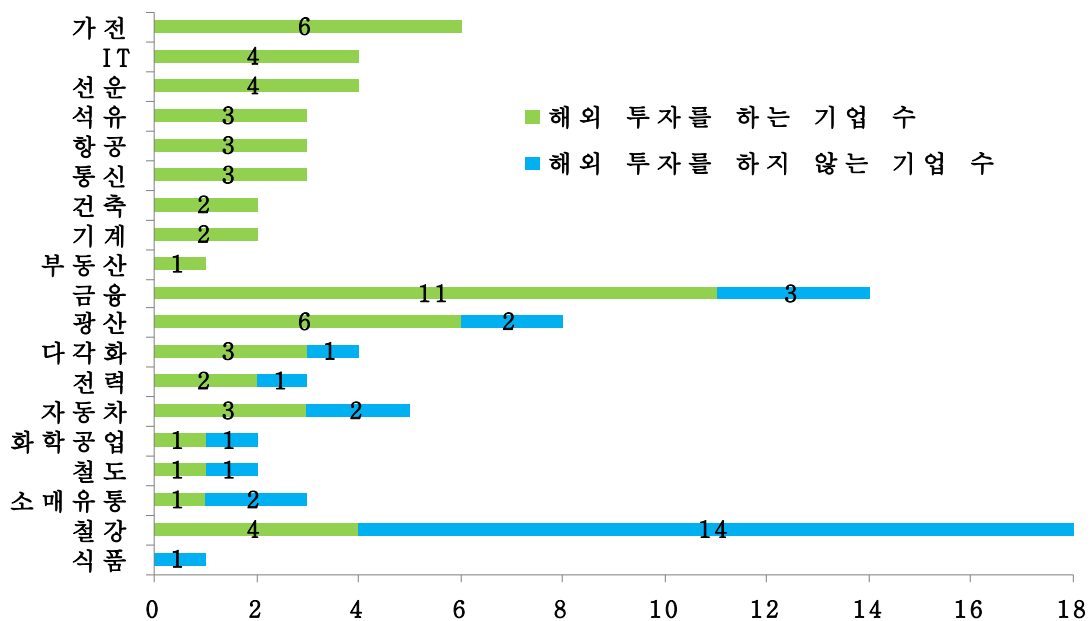
자료: 각사 연보

대상 기업의 해외투자 산업과 지역 분포

□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짐

- 가전, IT, 해운, 석유, 항공, 통신, 건축, 기계, 부동산 등 9개 업종에 대한 지분 투자가 두드러짐
 - 석유, 통신 등 국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⁶⁾의 해외투자가 가일층 확산
 - 다국적 경영의 특징을 가진 해운, 항공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뚜렷한 양상
 - 가전, IT업계 기업들도 글로벌화 트렌드 및 경쟁력 향상의 특징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추세

88개 대상 기업의 산업 분포 (단위: 개 사)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소매유통, 철강, 식품 등 3개 산업의 경우, 대상 기업 중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이 절반도 되지 않아 국제화 수준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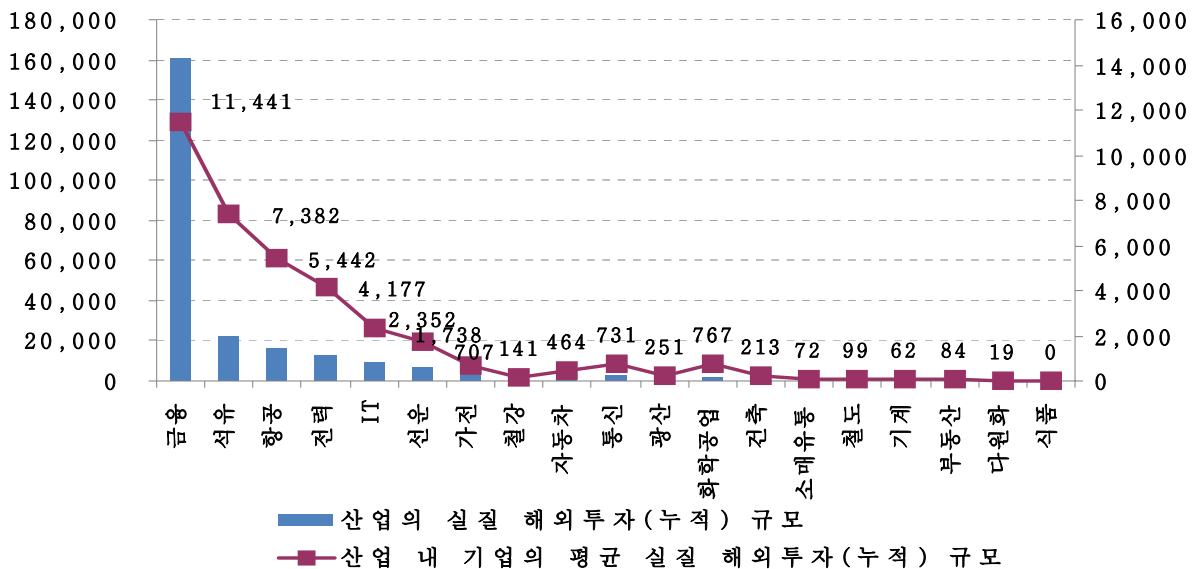
6) 대상 기업 중 석유기업은 CNPC, 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통신업체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 금융, 석유, 항공, 전력 順으로 4개 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가 100억 위안을 상회
- 이상 4개 산업의 기업 평균 해외투자 규모는 40억 위안을 상회해 전체 산업 중 최고치를 기록
- 금융산업의 총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와 기업 평균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는 각각 1,602억 위안과 114억 위안으로 전체 산업 중 최고
- 상기 산업들은 행정적 통제 및 독점적 성향이 강해 기업 규모가 크고 해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

2008년 末 현재, 대상 기업의 산업별 실질 해외투자(누적)

(단위: 백만 위안)

(단위: 백만 위안)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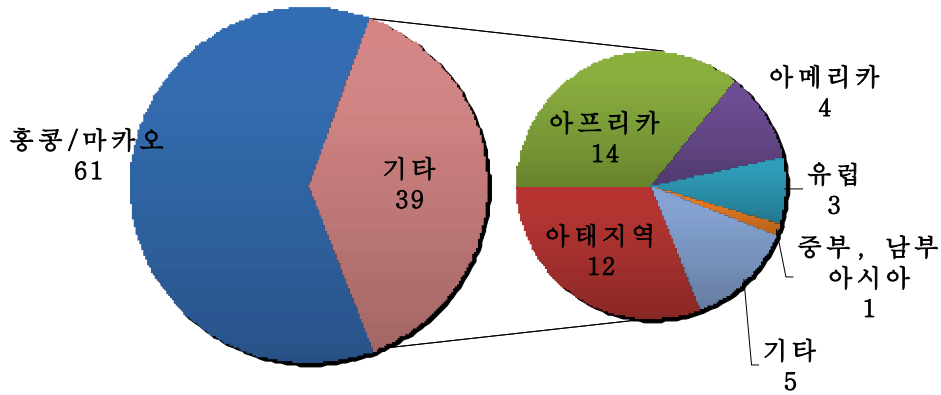
□ 내륙과 인접해 있고, 문화습관이 유사한 아태지역이 주요 투자지역

- 大中華 경제권 내 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대상 기업 총투자액의 61%를 차지⁷⁾

7) 대상 기업 중 금융기관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는 기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며, 대부분 홍콩·마카오 지역에 집중. 금융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대상 기업의 對홍콩·마카오 투자가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여전히 1위를 차지

- 對홍콩·마카오 투자에서 금융분야 투자가 1,182억 위안으로 금융산업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의 73.8%, 대상 기업 對홍콩·마카오 투자액의 79%를 차지
 - 대외 개방 이전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교류 채널이었던 홍콩·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교역량이 크게 증가
 - 금융 인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홍콩은 내륙 금융기관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금융센터의 위상을 강화
 - 화교가 주도하는 對싱가포르 투자는 236억 위안을 상회해 아태지역에서 홍콩에 버금가는 실질 해외투자 지역
 - 주요 투자산업은 전력, 화학공업, 전자, 항공, 해상운송 등
 - 대만에 대한 투자 규제가 완화된 후 중국 내륙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아프리카, 호주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도 대상 기업의 주요 투자 지역
- 중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석유, 광산 등 에너지 자원 또는 대규모 아프리카 인프라 관련 산업에 집중
 - CNOOC의 對나이지리아 투자, CRCEG(중국철도부설그룹, 中鐵集團)의 對콩고 투자, 코스코(COSCO, 中遠集團)의 對리비아 투자
 - 최근 중국공상은행이 남아공스탠더드뱅크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등 중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 석탄, 철, 기타 유색금속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가 대상 기업의 향후 신규 투자지역으로 부상
 - 2008년 말까지 대상 기업의 석탄, 철강, 유색금속 등 對호주 투자는 224억 위안으로 전체 對호주 투자의 91.4%를 차지

대상 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분포 (%)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수익률, 기타 요소와의 상관관계

□ 대상 기업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⁸⁾,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은 기업 규모, 수익률과 연관

- 다수의 국제화 관련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업의 시가, 매출액, 수익률은 해외 투자와 양(+)의 관계
 - 기업 지표(시가, 매출액)와 기업 수익률 지표(순이익 및 수익률)는 양의 관계를 보이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도 大⁹⁾
 - 시가와 순이익 연관성은 0.977로 자본시장이 기업의 수익률을 정확히 반영

8) 대규모 해외투자를 더미(dummy)변수(Yes=1, No=0)로 변환, 88개 대상 기업의 이원로그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변수는 2008년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시가, A주식 여부, 다수 지역 상장 여부, 국유기업 여부를 포함. 'Stepwise Backward 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변수를 선별한 후 기업의 해외투자 여부는 기업의 시가, 순이익, 국유기업 여부, A주식 여부, 다수 지역 상장 여부와 유관함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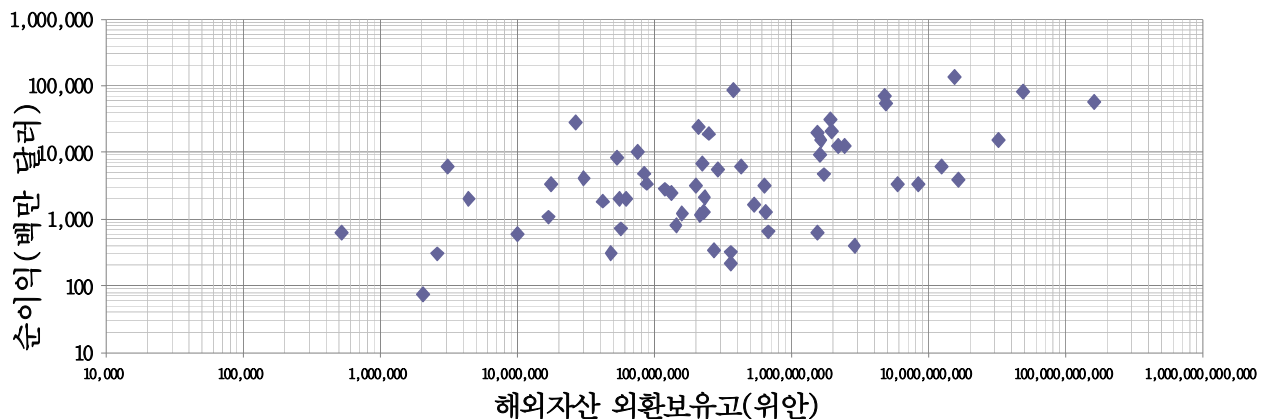
9) 매출액, 순이익, 시가, 수익률과 해외투자액의 관계지수(Peterson Coefficients)

	매출액	순이익	시가	수익률
순이익	0.736**			
시가	0.750**	0.977**		
수익률	0.108**	0.489**	0.430**	
해외투자	0.208*	0.241*	0.240*	0.150*

n=88; **p<0.01, *p<0.05

- 시가, 매출액, 순이익, 수익률은 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와 직결돼 규모,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쟁우위론>에 부합
 - <경쟁우위론>이란 규모, 수익률 우위를 확보한 기업은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활발히 해외투자를 추진한다는 이론
- 현실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기업경영 전반에 영향을 주며 <경쟁우위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해외투자 효율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2008년 대상 기업의 순이익과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非국유기업의 13배에 달하며 국제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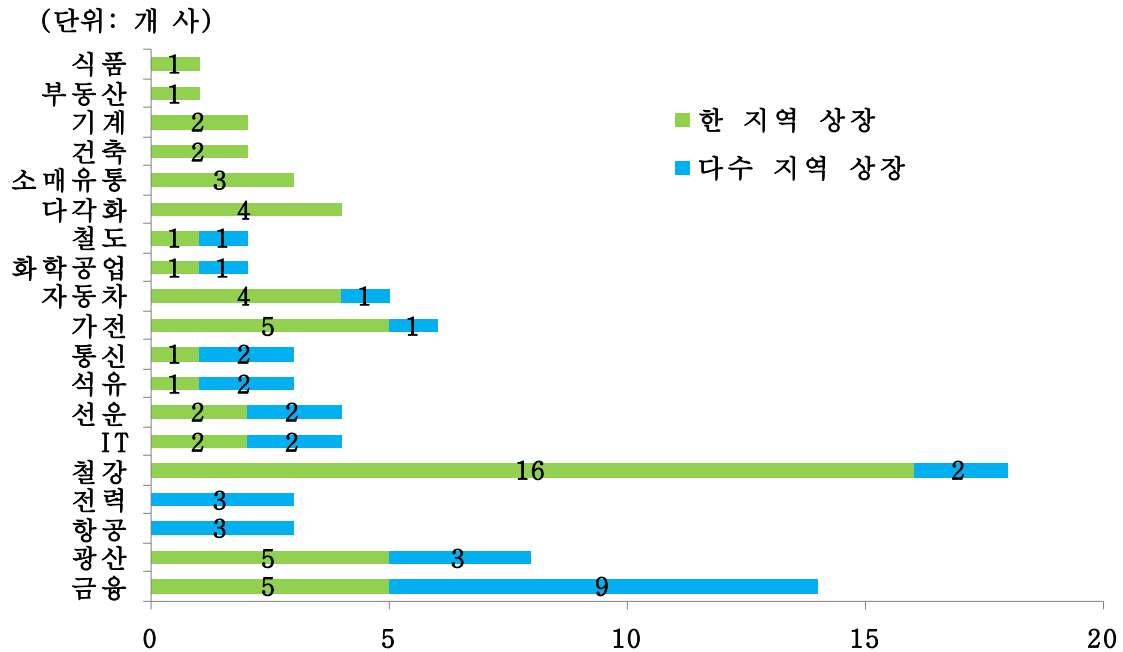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 규정한 국유기업(국가지배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50% 이상의 지분이 국가기관에 속한 기업으로, 이는 전체 대상 중 65개 사로 집계

- 국유기업의 순이익(123억 위안)은 非국유기업(34억 위안)에 비해 높지만 시가, 매출액 면에서는 이보다 적은 격차를 유지
- 국유기업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해외투자 동기가 강한 반면, 非국유기업은 매출액과 해외투자 동기가 일치하지 않음
 - 이는 非국유기업이 해외투자에 더욱 신중히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
- 장기간 주요관리부서의 특혜를 받은 대규모 국유기업의 수익률과 해외투자 규모가 非국유기업 대비 높다는 사실을 증명
 - 수익률과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의 상관 관계는 정책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

□ 다수의 지역에 상장한 32개 사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83.6%로 높은 수준

- 단일 지역에만 상장한 기업은 식품, 부동산, 기계, 건축, 소매유통, 철강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한 산업
- 다수 지역에 상장한 기업의 매출액(평균 1,576억 위안), 수익률, 시가는 단일 지역에만 상장한 기업(매출액 426억 위안, 수익률 7.4%, 시가 918억 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준
- 다수 지역에 상장한 기업은 상이한 문화와 해외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화에 적극 참여
- 대상 기업 중 A증시 또는 A증시와 기타 시장에 동시 상장한 70개 기업과 해외에만 상장한 18개 기업은 규모,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없음

산업별 단·복수 상장 현황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 금융, 광산, 가전업체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기타 기업보다 높으며, 철강업체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기타 업체보다 저조

- 금융기업의 장기적 대외지분 투자는 대부분 홍콩·마카오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는 조세피난 목적을 위해 버진제도, 케이맨, 버뮤다 등에 분산
- 산업집중도, 국제화 수준이 석유산업 대비 낮은 광산(석탄, 유색금속 등)산업은 최근 내수 활성화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대응
- 가전업체는 국내시장 성공을 배경으로 원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방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철강업체의 경우 내수가 견고하고, 생산원가 및 정책적 지원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로 원자재 확보 목적 이외의 해외 진출 동인이 부족
 - 바오스틸은 철강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에 바오화루이광산유한공사(寶華瑞鑛山有限公司)를, 호주에 마스틸(Ma Steel)을 설립

대상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투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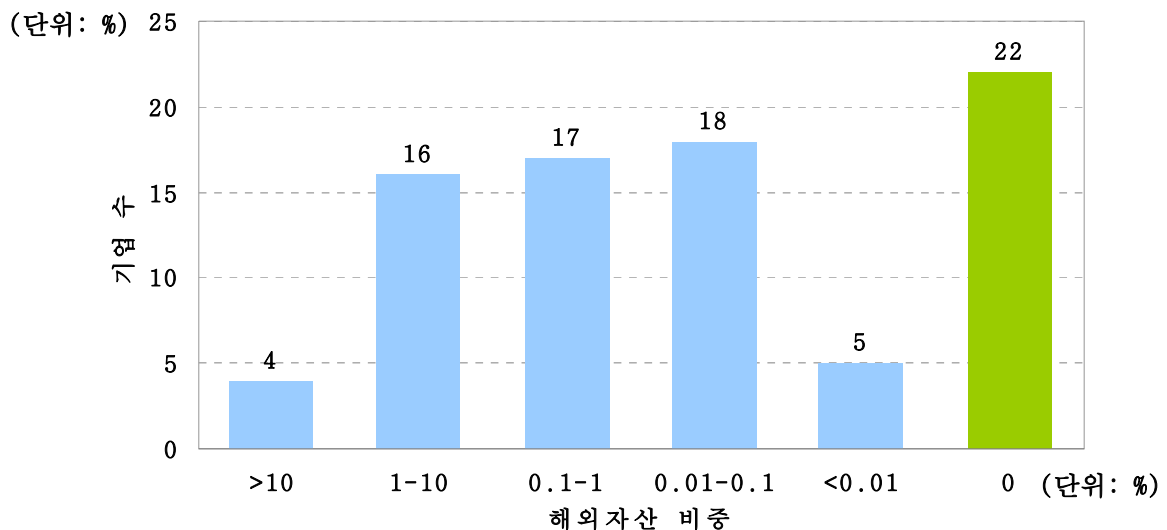
□ 기업 국제화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해외자산 비중, 해외매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국제화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 현재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세계 선진수준과 격차를 보임

- 88개 대상 기업 중 해외자산 비중이 10% 이상, 1% 미만인 기업은 각각 4개, 45개에 달함
- 해외자산 비중이 10%를 상회한 기업은 각각 레노버(19.4%), 중국국제항공(16.5%), TCL(12.3%), 중하이컨테이너(11.9%)
- 레노버의 IBM PC사업 인수, TCL의 알카텔(Alcatel) 휴대폰사업 인수, 중국국제항공의 홍콩 캐세이패시픽(Cathay Pacific, 國泰航空) 지분 인수 등 사업 및 지분인수를 통해 해외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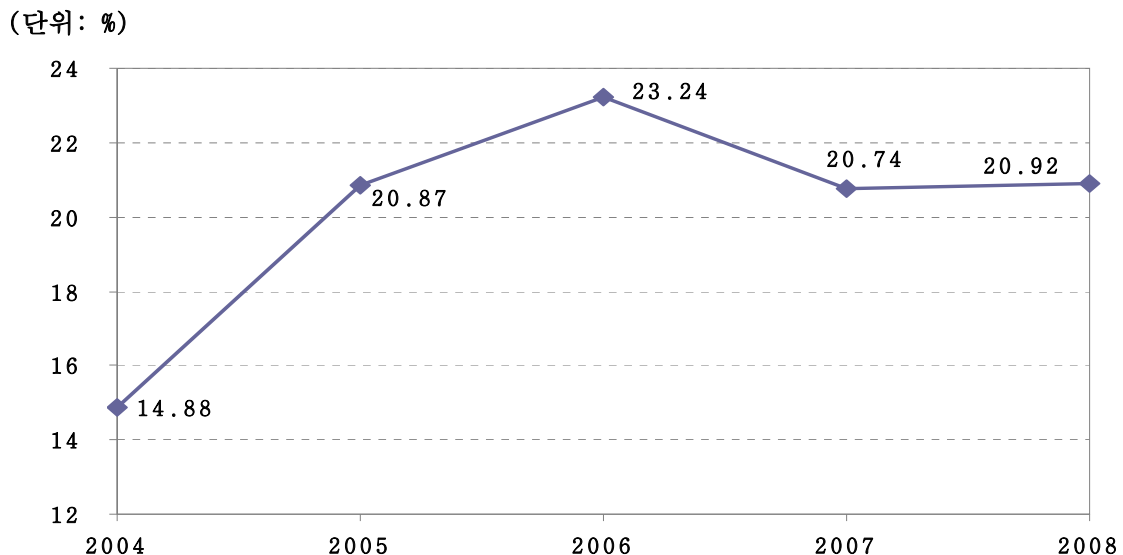
대상 기업의 국제화 수준 (해외자산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 2008년 대상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평균 15.5%이고, 그 중 18개 기업의 해외매출은 전무한 반면 7개 기업은 50%¹⁰⁾를 상회
 - 해외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한 기업은 중국위안양(COSCO, 中國遠洋, 91%), 창청커지(長城科技, 65%), 레노버(63%), ZTE(中興, 61%), 전화항구기계(振華港口機械, 60%), 중하이컨테이너(58%), 중국국제항공(51%)
- 2004년부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된 가운데 중국기업은 대규모 해외 인수건을 성사시킴
 - 2006년 대상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23%를 기록하며 최고점에 도달
 - 일부 중국기업은 해외 인수 후 통합에 실패해 해외사업 규모를 축소
- 2006년 세계 시가 100위권 기업의 해외자산 비중은 평균 38%이고, 해외매출 비중은 44%로 중국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¹¹⁾
 - 이는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아직도 낮다는 것을 반영

대상 기업의 평균 해외매출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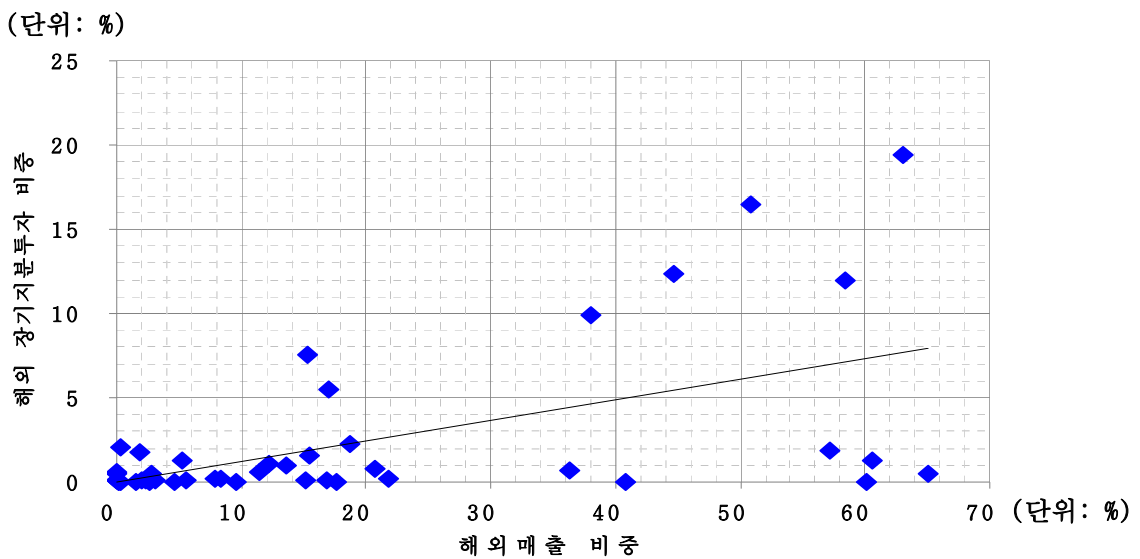
10) 국내 및 해외(홍콩·마카오·대만 포함) 매출을 공개한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기타 19개 기업은 지역별 매출을未공개.

11) Meagan C. Dietz, Gordon Orr & Jane Xing (2008). How Chinese Companies Can Succeed Abroad. Mckinsey Quarterly, 1-9

□ 대상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매출간의 연관성은 해외 장기지분 투자가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설명

- 자료가 불충분한 19개 기업을 제외한 69개 대상 기업을 2개 그룹으로 분류
 - 제1그룹: 25개 기업, 해외 장기 지분투자가 없는 기업
 - 제2그룹: 44개 기업, 해외 장기 지분투자가 있는 기업
- 제1그룹의 해외매출 비중이 5.9%인 반면 제2그룹은 20.9%로 제1그룹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제2그룹의 해외 장기 지분투자 규모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매출 비중과 밀접히 연관($t=3.266$, $df=42$)

해외매출 비중과 해외자산 비중의 관계



- 2개 그룹의 비교 및 제2그룹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와 해외매출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일조

- 레노버와 달리 TCL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수를 추진하며 조직통합에 주력한 결과, 신규사업의 장기 적자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
- TCL은 사업 중심을 중국시장으로 전환하며 2007년부터 국내시장 매출을 글로벌 매출의 50% 이상으로 유지

- 기업의 해외투자 효과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증

□ 중국은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해외투자를 추진했으며, 중장기 투자효과는 제한적

- 중국 100대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금융·석유·항공·전력 산업 및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가전산업에 집중
- 지역적으로 볼 때,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 중국인 거주 지역 및 아프리카, 호주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

- 정책성 지원을 받는 대형 국유기업은 현재까지 높은 수익성과 함께 과감한 해외투자를 전개

- 중국 대기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효과는 여전히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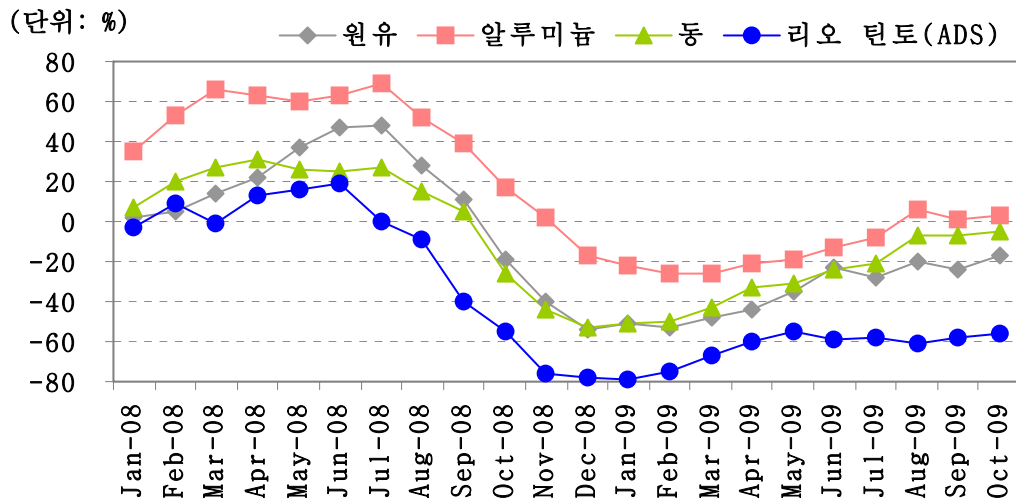
4.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거시환경 변화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

□ 중국 외환보유고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자산 인수를 적극 지원

- 중국은 수출지향 경제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확보
 - 2009년 3/4분기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3조 달러
 - 미국 등 서방국가의 재정확대에 따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중국 외환보유고의 가치하락 우려가 확산
 - 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의 가치 유지와 함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해 더욱 견고한 국가자산을 확보하도록 독려
 - 중국알루미늄공사(中國鋁業公司)의 리오틴토(Rio Tinto) 지분 인수 등 대다수 국유기업의 인수는 정책적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
 - 최근 중국의 국부펀드를 대행하는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는 사업 중심을 금융시장에서 자원·부동산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로 이동
 - 2009년 7월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는 캐나다 테크자원(Teck Resources Limited)의 지분 17.2%를 15억 달러에 매입했고, 9월에는 8.5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농산물 공급업체인 홍콩의 노블그룹(Noble Group)의 지분 12.9% 인수
- 금융위기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석유, 광산물 등의 천연자원으로 집중
-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금속 등 벌크상품의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자원형 기업의 주가가 폭락
 -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을 받판 삼아 석유·광산물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세계 벌크상품 가격 및 리오 틴토의 주가 변화



주: 2007년 12월 평균가격 대비 증감율

자료: IMF Data and Statistics,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의 공개자료

2008년 12월 이래 중국 자원형 산업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

시간	중국측	외국측	지분 비중	계약금액
2008-12	우강(武鋼)	CentreMetals (호주)	50%	1.8억 호주달러
2008-12	시노펙(Sinopec, 中石化)	탕가니카(Tanganyika) (캐나다)	100%	20억 달러
2009-2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中石油)	베레넥스에너지(Verenex Energy) (캐나다)	--	5억 캐나다달러
2009-6	시노펙	아닥스(Addax) (스위스)	--	72.4억 달러
2009-7	서북유색지질탐사국 (西北有色地勘局)	메르디안(Meridian) (호주)	45%	1천만 호주달러
2009-7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테크자원 (캐나다)	17.2%	15억 달러
2009-7	중국우광(China Minmetals, 中國五礦)	오즈미네랄(OZ Minerals) (호주)	--	13.7억 달러
2009-7	페트로차이나	오사카 정유공장	49%	--
2009-7	페트로차이나 + 시노펙	마라톤오일(Marathon Oil)의 양콜라 석유 블록	20%	13억 달러
2009-8	지언니켈(Jien Nickel, 吉恩鎳業)	빅토리니켈(Victory Nickel) (캐나다)	18.98%	270만 달러

2009-9	시노켄(Sinochem, 中化集團)	뉴팜(Nufarm) (호주)	100%	24억 달러
2009-9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노블그룹(홍콩)	14.5%	8.5억 달러
2009-9	바우터우철강그룹 (包頭鋼鐵集團)	센트릭스 메탈(CXM)의 병겔로우 (Bungalow) 자철광 (호주)	50%	4천만 호주달러
2009-9	진촨그룹(金川集團)	니켈광 (잠비아)	51%	--
2009-9	중국철로물자총공사 (中國鐵路物資總公司)	페르어스(FerrAus) (호주)	12%	1,078만 달러
2009-9	후난유색금속지주그룹유한공사(湖南有色金屬控股集團有限公司)	BBAM(Beaver Brook Antimony Mine) 캐나다 안티몬광	100%	2,950만 달러
2009-9	페트로차이나	싱가포르석유공사	100%	--
2009-10	엔저우석탄(Yanzhou Coal Mining, 兗州煤業)	펠릭스(Felix) (호주)	100%	189억 위안
2009-10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노벨오일 (러시아)	45%	3억 달러
2009-10	광둥원자력발전그룹 (廣東核電集團)	에너지메탈(Energy Metals) (호주)	70%	7,600만 달러
2009-11	바오스틸(Baosteel Group, 寶鋼集團)	아퀼라(Aquila) (호주)	15%	2.9억 호주달러
2009-11	우강	센트릭스 메탈	15%	3.3억 호주달러
합계				약 210억 달러

주: 당월 매매기준을 기준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금융위기 이후 중국 국유/민영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해외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치적 요소가 실리 중심으로 전환

-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리보다는 정책적 중요성을 우선시했던 과거 해외투자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기 시작
- 최근 추진 중인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실리 추구형 해외자산 인수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과거 대형 외국기업에 국한되던 피인수 주체가 성장잠재력 있는 2, 3급 기업으로 확산되며 인수기간이 단축되고 성사율이 높아짐
-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방법을 선택
 - 페트로차이나는 BP와 토탈(Total)과의 제휴를 통해 이라크와 베네수엘라의 석유 블록 입찰에 참여

□ 금융위기는 중국기업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한 반면, 해외자산 가격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동시에 부여

- 벌크상품 분야의 인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 프로세스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가 높음
 -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와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면 피인수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중국알루미늄공사와 리오 틴토의 거래

- 2008년 글로벌 알루미늄 소비량은 3,800만 톤, 그 중 중국이 1/3인 1,250만 톤을 소요
-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bauxite)의 중국 내 매장량은 글로벌 매장량의 3.2%에 불과하고, 이마저 빈광이 많고 65% 정도가 경제적 가용성이 떨어짐
- 중국 알루미늄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알루미늄공사는 원자재 부족으로 2008년 톤당 2,400달러였던 알루미늄 가격을 7월 3,380달러로 상향 조정
-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중국알루미늄공사는 싱가포르의 자회사와 미국 알코아(Alcoa)와 협력하여 140.5억 달러로 리오 틴토의 지분 12%를 인수
- 당시 중국알루미늄공사의 총자산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리오 틴토 시가의 1/4에도 못 미쳤음

- 금번 인수로 중국알루미늄공사는 리오 틴토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지만, 이사회 자리를 얻지 못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함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리오 틴토의 주가가 80% 하락했고, 만기 예정인 400억 달러의 단기채무에 직면한 리오 틴토는 투자자를 모색하기 시작
- 2009년 2월 중국알루미늄공사는 195억 달러를 투입하여 전환채무를 매입, 지분 비중을 18%로 확대하고, 리오 틴토의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2명의 비상임이사 의석을 확보
- 중국알루미늄공사는 4월, 5월에 각각 독일정부와 미국 외국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호주의 외국투자심사위원회는 최종거래를 승인하지 않음
- 이후 벌크상품 가격이 회복세를 거치는 동안 알루미늄 가격이 2007년 말 수준으로 회복
- 리오 틴토의 주가는 거래 발표 이후 대폭 상승하였으며, 최악의 자금난에서 벗어난 리오 틴토는 중국알루미늄공사와의 투자거래를 중지

□ 대상 기업 중 대형 非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산업별, 기업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유기업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

- 과거 국제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해외투자에 참여
 - 중국 내 투자전략만을 견지하던 쑤닝(蘇寧)은 최근 일본 가전유통 업체인 라옥스(LAOX)를 인수
- 금융위기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를 더욱 확대
 - 2007년 10월 민생은행(民生銀行)은 주당 17.8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UCB(United Commercial Bank)의 지분 4.9%를 인수한 후, 2008년 12월 4.9달러의 가격으로 추가 인수하며 소유 비중을 9%로 확대

□ 대형 국유기업과는 달리 대형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은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

- 중국 대형 민영기업은 대부분 소비전자, 부동산, 기계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집중
 - 2008년 4/4분기 레노버 PC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매출은 20% 감소하며 사상 최고 적자액인 9,700만 달러를 기록
- 금융위기로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중국기업에게는 절호의 인수 기회로 작용
 - 소형 차량에 대한 감세 조치로 2009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1,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반해 실적이 저조한 GM, 포드(Ford) 등은 오펔(Opel), 허머(Hummer), 볼보(Volvo)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결정
 - 허머는 쓰촨팅중(四川騰中), 볼보는 지리(吉利)를 인수 협상자로 지목

□ 중국기업의 인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투자 전략을 조정

- 금융위기 전 해외투자는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라는 원대한 목적으로 추진
 - 레노버의 IBM PC사업 인수, TCL의 톰슨 인수 등은 파생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2005년 상치(上汽)는 한국의 쌍용(雙龍)자동차를 인수한 후 노조와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 쌍용은 파산하고 상치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
- 금융위기를 거치며 '생산과 시장의 균형'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
 -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업체는 명확한 목표 아래 자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추진

지리의 해외투자

- 막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중국의 자동차업체는 기술과 브랜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수 대상을 모색
- 중국의 민영자동차업체인 지리가 독자 개발한 자동변속기는 중형 승용차, SUV 차량에 적용이 제한적
- 2009년 3월 지리는 경영난에 빠진 세계 2위 기어박스 기업인 호주의 DSI(Drivetrain Systems International)를 인수
- 인수를 통해 지리는 4배속·6배속 전륜·후륜 구동식 高토크 자동변속기 시리즈 기술을 확보, 낮은 비용으로 기술적 단점을 극복
- 현재 지리는 포드 산하의 브랜드인 볼보를 20억 달러에 인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는 1999년 포드가 볼보를 인수할 때 지불한 가격의 1/3에 불과
- 지리는 볼보의 생산 및 R&D 기지, 노조협의 및 판매상 네트워크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볼보의 판매망과 부품 구매채널을 확충하여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
- 볼보의 기술 및 브랜드 통합에 성공할 경우, 지리는 글로벌 고급차량시장에

□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국기업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우량기업의 경영난, 자산가격 하락, 해외투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 완화 등은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해외투자 환경을 제공
-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더욱 견고해지고, 양적 확대보다는 자사의 결점 보완 및 경쟁력 향상에 주력

5. 결론 및 제언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정책적 목적보다는 경제효과를 지향하는 독자경영 노선을 견지
 -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업의 투자전략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 독점 국유기업들이 여전히 해외투자의 주체군을 형성하며 전체 점유율과 규모면에서 기타 민영기업을 압도
 -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 총액이 증가
- 중국시장의 개방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
- 총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J. Child와 S.B. Rodrigues의 일부 관점과 다른 결론을 얻음
 - J. Child와 S.B. Rodrigues의 관점은 주로 중국시장의 다양한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다고 설명
 - 반면 본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중국 국내시장 메커니즘이 개선되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
- 해외자산 비중, 해외매출 비중 등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지리적으로는 홍콩, 마카오 지역에 집중
 -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거쳤고, 2001년 이후 본격적인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루어짐
 - 홍콩, 마카오 지역은 계획경제시대부터 중국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했고, 최근까지도 인력, 법률, 세금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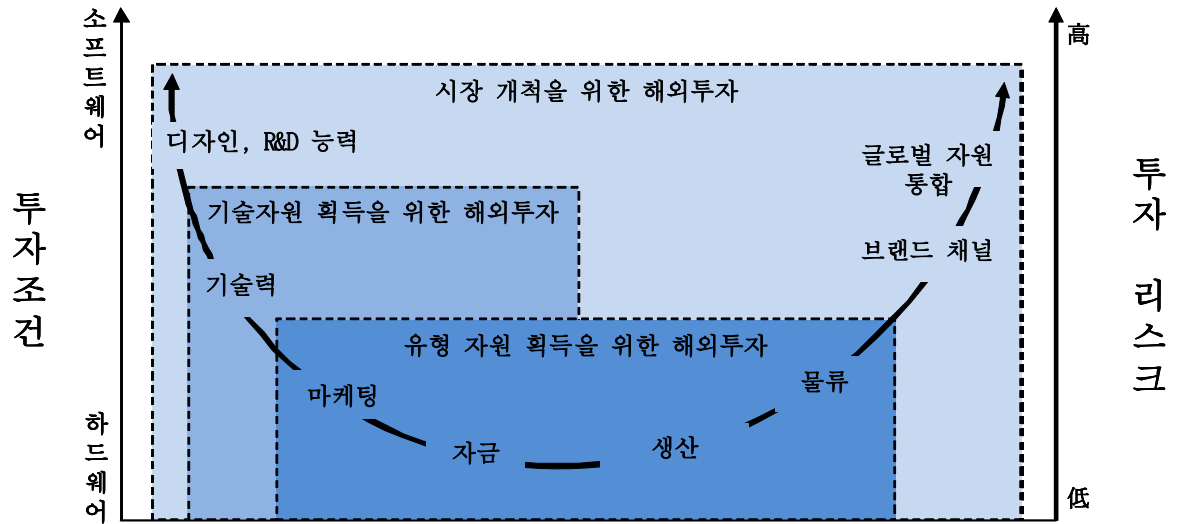
-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시장 침체에 따라 기업의 투자계획이 국내시장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히 반응
 - 국내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업체의 기술 및 브랜드 가치도 동반 성장
 -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석유, 광산물 등 기초자원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자원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호주 등으로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효과가 제한적
 - 국내시장 개척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시장 개척은 투자비용 외에도 국내시장 개척에 대한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
- 금융위기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의존도를 높임과 동시에 해외투자를 위한 호기를 마련
 - 중국기업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계 천연자원 개발업체와 기술특허 등 해외자원 인수에 앞장섬

□ 신흥시장 국가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에 反하는 한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과 일치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체기업의 규모, 수익과 유관하고, 기업의 속성, 참여 산업, 전략 요소가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전, IT 등 중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에서 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
-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 매출효과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가 동반되어야 함

- <경쟁우위론>에 입각한 중국의 해외투자는 현재 생산과 기술 등의 유무형자산 취득을 목표로 추진 중

해외투자 영역과 리스크



<참고>

중국의 OFDI 정책 변화

	도입기 (1979~1991년)	확장기 (1992~2000년)	안정기 (2001년 後)
기본 특징	- 규제가 엄격해 소수 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만 비준	- 해외투자관리 시스템과 심사 비준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	- 해외투자의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정부 역할이 관리와 통제에서 지원과 서비스로 전환
정책 법규	- 1979년: 국무원의 15개 경제 개혁 조치 출범, 제13조항에서 '외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비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 1985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해외에 非무역성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심사 비준 프로세스와 관리방법에 관한 실행 규정」을 발표	- 1993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중국 해외기업 관리 규정」을 기안 - 1996년: IMF협정 제8조항을 접수, 위안화 경상거래 자금 지급자유화	- 2006년: 중국정부는 다수의 해외경제무역협력지대를 설립,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 - 2009년: 「국내기구의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초안)」을 발표, 외환관리등록제 실시
심사 비준 프로세스	- 1979년: 규모와 유형에 구분 없이 모든 해외투자는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거침 - 1983년: 국무원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심사비준 부처로 지목,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심사하는 해외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조정 및 관리 -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투자 건의서와 타당성 보고서를 심사 - 인민은행 등 기타 부처, 성급 대외무역부처, 해외주재 대사관·영사관 등은 협조	- 2004년: 상무부, 재정부, 외환관리국 등은 심사비준권을 하부 기관에 이양, 3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심사 - 2009년: 非중양직속기업의 1,000만 달러 이하의 일반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시급 정부기구에서 심사비준
투자 주체, 분야, 수단	- 중앙 및 지방의 전문 대외무역회사 및 국제기술경제합작회사 - 중국화학공업수출입공사(中國化工進出口公司), 중국오금광산수출입공사(中國五金鑛產進出口公司), 상하이수출입공사(上海進出口公司) 등 해외 대표처, 무역회사를 설립 - 非무역기업의 투자는 주로 삼림개발, 광산개발 및 어업개발 등 자원개발과 가공생산 분야에 집중	- 경공업, 방직업, 가전 등 기계전자 가공 및 복장가공 등 제조업은 해외 가공무역의 핵심 분야 - 투자주체는 하이얼, 이치(一汽), 진청(金城), 뤼양트랙터(洛陽托拉機), 콩카(Konka, 康佳), 춘란(春蘭), 상광덴(上廣電), 루왕(鹿王) 등 국내 유력 생산기업 - 그린필드 투자, 해외 공장 건설, 독자 브랜드 생산 및 판매 등 투자방식의 다양화	- 해외투자주체 중 국유기업의 비중은 2003년 45%에서 2006년 26%로 현저히 하락 - 기업의 투자분야가 다원화된 가운데 자원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서비스업, 도소매업 관련 투자 프로젝트가 현저히 증가 - 해외 인수규모가 신속하게 증가, 투자총액은 2002년 2억 달러에서 2008년 205억 달러로 증가